

전남 연금 수급률 전국 1위…광주는 수급액 호남 최고

전남 65세 이상 95% 연금 수급…광주 월평균 82.4만

18~59세 가입률 전남광주 모두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광주 지역 고령층의 연금 수급 현황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광주는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미래 노후를 준비하는 18~59세 연금 가입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 확대가 과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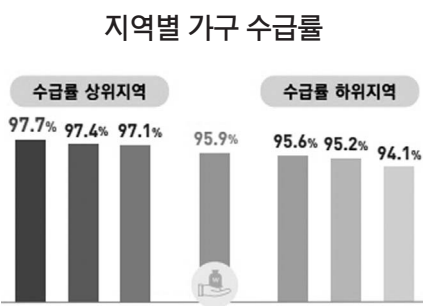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9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 91.2%보다 3.6%p 높은 수준이다. 전남에 이어 경북 93.7%, 전북 93.6%, 경남 93.4% 등의 순으로 수급률이 높았다.

전남은 높은 수급률과 달리 월평균 수급액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에 그쳤다.

전남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4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73만7000원보다 9만3000원 적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 64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년 60만1000원과 비교하면 7.2% 증가했다.

반면 광주는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22만

7000명으로, 수급률은 91.1%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91.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82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만7000원 많았다.

광주의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 91만5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 82만원과도 비슷했다. 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고령층의 연금 수급 현황과 달리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반은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18~59세 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 81.1%였다. 광주는 78.9%로 전국 평균보다 2.2%p 낮았고, 전남은 80.4%로 0.7%p 낮았다. 가입자 수는 광주 66만7000명, 전남 6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연금보험료 납부액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8~59세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전국 36만3000원이었지만 광주는 35만7000원, 전남은 3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액은 지역의 고용·소득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액이 낮아 향후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광주·전남의 연금 구조가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은 높은 수급률을 바탕으로 실제 노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광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액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

의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특히 18~59세 연금 가입률이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만큼 청년·중장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노후소득 보장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지역별로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18~59세 연금 가입률은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대출 줄어도 주담대 늘었다…가계빚 ‘주택’에 쏠려

전국 감소세 속 호남권 주택대출 수요 확대

가계대출 잔액 7876만원…주담대 151만원 ↑

전남광주특별시를 포함한 호남권에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전국적인 감소 흐름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과 잔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지역 가계의 대출 수요가 주택 관련 자금을 집중되는 모습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남권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871만원으로 전분기 2758만원보다 113만원 증가했다.

전국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3542만원에서 3414만원으로 128만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남권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296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817만원으로 감소한 뒤 2분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각각 193만원씩 감소하는 등 대부분 권역에서 신규 대출 규모가 줄었지만, 호남권은 113만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호남권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억7315만원으로 전분기 1억6202만원보다 1113만원 증가했다. 전국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2939만원에서 2억829만원으로 2110만원 감소한 가운데 호남권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분기 1억5450만원과

비교하면 1865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수도권 59.4%, 동남권 13.2% 등에 비해 낮았다.

이는 절대적인 대출 규모는 수도권보다 작지만, 2분기 들어 지역 내 신규 대출 수요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출 잔액 역시 증가했다. 2분기 말 호남권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7876만원으로 전분기 7846만원보다 30만원 늘었다. 전국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도 979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했지만, 호남권 역시 지난해 1분기 7772만원에서 꾸준히 증가

해 지난해 4분기 7.868만원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1분기 소폭 감소한 뒤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 폭이 더욱 뚜렷했다. 2분기 말 호남권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211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51만원 늘었다. 지난해 2분기 1억1584만원과 비교하면 526만원 증가했다. 전국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1억6193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87만원 늘어나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에서는 일부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국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

억6193만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2051만원으로 전분기보다 88만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3310만원으로 3만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기준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24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1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40대가 1억586만원, 30대가 2억341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가장 높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약후강’ 코스피 6700 회복
오전 급락 딛고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급락한 뒤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다.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오른 6742.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2.40% 내린 6535.93에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낙폭을 4% 넘게 키웠지만 이후 빠르게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수급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3조814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523억원, 1조17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자는 한때 4.6% 급락했다가 전날 종가와 같은 25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4% 하락했다가 0.4% 올라 167만원을 넘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기(3.34%), 현대차(1.69%), 삼성바이오(0.76%), 등이 올랐고, 4대 금융지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자본 투자를 제한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지빌리티(10.55%), 한전기술(20.27%), 현대건설(14.87%) 등 원전종목들도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13p(1.7%) 오른 827로 장을 마쳤다. 한때 800을 밑돌았지만 점차 낙폭을 줄였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1330억원, 기관은 14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368억원을 순매도했다.

장중에는 전날 상승했던 배터리와 제약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로봇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김은지 기자

광주농협·진도농협 손잡고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개최…판로 확대·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협 광주본부부는 광주농협이 진도농협과 함께 본점 앞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농심친심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진도농협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홍고추를 직접 수매·선별·포장해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광주농협 관내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 행사에는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 노춘성 진도농협 조합장, 박장호 광주경영기획단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전부터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웹메시지와 밴드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이날 600여명의 시민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았다.

준비된 홍고추 8000근(4.8t)은 판

매 시작 약 2시간 만에 모두 팔리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생산 농가에서 상품성이 좋은 고추를 선별해 출하하고, 진도농협이 품질보증을 강화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소비자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판매 가격은 5근(3kg) 당 6만5000원이었다.

노춘성 진도농협 조합장은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뛰어난 진도산 명품 태양초 고추를 광주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농민의 땀방울이 담긴 정직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진도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은 “올해로 6화제를 맞은 행사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시농협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산지농협과 협력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도농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농협이 진도농협과 함께 본점 앞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농심친심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아 식품 유통망 JFC 인터내셔널의 핵심 바이어 대상 수출 상담회 ‘Taste of Korea 2026’에 참가했다.

aT, ‘K-발효·간편식’ 북미시장 진출 확대

수출 상담회 ‘Taste of Korea 2026’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아 식품 유통망 JFC 인터내셔널의 핵심 바이어 대상 수출 상담회 ‘Taste of Korea 2026’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JFC 인터내셔널은 1958년 설립된 글로벌 식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북미 전역의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등에 1만5000여종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99 Ranch Market, 슈퍼리어 그로서리(Superior Grocers) 등 현지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와 바이어 300여 명이 참석해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는 권역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

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발효식품과 간편식품을 주력 품목으로 선정하고,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 앞서 aT LA지사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북미 시장 진출 전략과 유통환경 등에 대한 1대1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JFC 주요 카테고리 매니저가 참여한 두 차례의 샘플 시식회를 열어 현지 바이어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 같은 사전 준비와 검증을 거쳐 이번 상담회에서는 참가기업 가운데 6개사 제품의 JFC 유통채널 입점이 확정됐다. 특히 사전에 제품 코드를 등록해 바이어가

현장에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입 절차를 한층 앞당겼다.

aT는 이번 입점 성과가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우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콘텐츠 제작과 체험단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K-발효식품과 간편식품을 북미 시장의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연초 미국 식단 권고지침에 김치가 포함되는 등 북미권역에 K-푸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K-푸드가 북미 식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유망품목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어촌공사. SDGs 경영 인증
경영체계 국제표준으로 검증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ISO/UNDP FDIS 53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조직의 경영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개발한 경영시스템으로,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등 경영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연계·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

공사는 식량 인프라 조성, 농업융수 관리, 농어촌 지역개발 등 주요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연계를 강화해 왔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3대 목표와 9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추진해 왔다.

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